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소식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알림

1. 이번 집회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시는 호성기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5월호를 남플 도서관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5월 월삭(일축복) 예배 안내

일시: 5월 1일(금) / 장소: 대예배실

- * 새로운 한 달, 첫 날 첫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 * 월삭 예배 설교 마친 후 안수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 * 월삭 예배 헌금 봉투는 교회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봉투 앞 면에 가정별 기도의 제목을 함께 정성껏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한 관계를 위한 "관계 성장" 세미나

- 1) 일시 : 4월 29일(수) 오전 10시
- 2) 장소 : 초등부실
- 3) 강사 : 윤은주 집사 (생명의 전화 강사)
- 4) 참석대상 : 모든 성도
- 5) 주관/문의 : 어머니 기도회 (권준희 사모)

• 5월 가정의 달 [영화 「신의 악단」 상영 안내]

- 1) 일시 : 5월 9일(토) 오후 7시 / 5월 10일(주일) 오후 6시 (2회 상영)
- 2) 관람료 : \$7 (현금, 전액 배급사 전달) * 15세 이상 관람가
- 3) 관람신청 : 교회 로비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주소> <https://forms.gle/XTg6tkojbkqVm3Uw7>
- 4) 주관/문의 : 가정사역팀 (홍석주 집사)

교육부 소식

• 유아 유치부 초등부 소식

1. 유아 유치부 큐티학교 오픈! 유튜브 "남플유아유치부" 채널에서 '예수님 이랑 나랑' 큐티가 매일 진행됩니다.

• Y.E.M. (Youth, English, Multicultural)

1. Sunday Service @ 10:30 am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습3:17)



영화 「신의 악단」 상영 안내

5월 9 일 10 일
토 주일
오후 7시 오후 6시

관람료 : \$7 (CASH - 전액 배급사에 전달)

관람신청 : 온라인 신청



남부플로리다
감리교회
South Florida Methodist Church

주소: 6501 W COMMERCIAL BLVD,
TAMARAC, FL 33319

문의: 권태홍 목사(248-310-9921)

지난주 헌금 통계

일반헌금 \$15,121.00	심일조: \$10,721.00	감 사: \$670.00
	주 일: \$2,141.00	기 타: \$1,589.00
지정헌금 \$290.00	목장선교: \$260.00	건 축: \$30.00

**** 온라인 헌금/우편 송금 내역은 다음주 통계에 반영됩니다.**

제45권 17호
2026년 4월 26일



2026년도 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습3:17)

남플 G.P.S

God's Word
Prayer
Service

담임목사

권태홍
Rev. TaeHong
Kwon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남부 플로리다
South Florida
감리교회

Global Methodist Church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5:19)

P. the Poor in Spirit
O. Oneness in Lord's Hand
E. Encouragement in Christ
M. Mission-oriented Life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아름다운 시(P.O.E.M)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6501 W. Commercial Blvd. Tamarac, FL 33319

교회(954)597-0735

mcosf.org

< 부활절 넷째주일 > 예배순서

1부(8:00a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 ▲ 송영 Doxology / 살아계신 성령님
- ▲ 참회기도 Prayer of Repentance
- ▲ 사죄의선포 / 인도자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찬송 Hymn / 428장(통488)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기도 Prayer / 박인숙 장로
찬양 Choir / 호산나 찬양대
Sing! 찬양! 온 세상 만드신 주

교회소식 Announcement

- ▲ 봉헌 및 봉헌기도 Offering 다같이
- ▲ 성경봉독 Scripture 고전(1Cor) 4:1-2..... 다같이
- 설교 Sermon 호성기 목사

< 선교적인 교회는 사명으로 산다 > A missional church lives by its mission

- ▲ 파송찬송 Closing Hymn/ 507장(통273) 저 북방 얼음 산과
- ▲ 축도 Benediction 호성기 목사

▲ 표에는 일어섭니다.

2026년 4월/5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예배 안내	헌금/안내	성경 봉독	대표기도	친교봉사
오늘 4월 26일	1부	Unity	담당자	박인숙장로	Unity목장
	2부			김혜숙권사	
다음주 5월 3일	1부	베뢰아	담당자	양우경권사	아름다운 목장
	2부			박우성집사	

설교요약

우리는 ‘선교’ 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일이나 사역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선교한다고 해서 선교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즉, 행동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9-10은 우리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1-2에는 선교적인 삶을 설명하는 네 가지 중요한 헬라어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I.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꾼’ 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오이코노모스’ —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12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믿고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며 죄인 중의 괴수였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22-23은 말합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합니다. 로마서 8:31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둘째, ‘위페레테스’ —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 이름 없는 일꾼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II.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24-27에서 말하는 이 ‘비밀’ (뮤스테리온)은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또한 고린도후서 6:1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환난과 궁핍, 고난과 매 맞음, 갇힘과 수고, 잠 못 이루고 먹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깨끗함과 인내로 사역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 있으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 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 생을 마친 존 하퍼처럼, 우리는 주어진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새 피조물이며(고린도후서 5:17), 확고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

<설교 요약>



III.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충성’ 입니다
고린도전서 4:2은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란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에 따라 변하지만, 참된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빌립보서 2:5-11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24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이루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생명의 본질, 곧 영적인 DNA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능력을 ‘사랑’ 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이며,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삶,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 나눔 질문 >

- 1) 나는 ‘선교하는 사람’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라고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나요? (내가 스스로 규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 2)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일꾼(청지기, 하인)’ 이라는 표현은 내 신앙 생활을 어떻게 다시 보게 합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것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점검해 봅시다.)
- 3) 하나님의 ‘비밀(복음)’ 을 맡은 자로서, 내가 현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가정, 직장, 관계 속 실제 적용을 나눠봅시다.)
- 4)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이라는 말씀에서, 내가 현재 끝까지 충성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포기하고 싶은 부분이나 지치고 있는 사역/관계가 있는지 나눠봅시다.)
- 5) 나의 삶에서 ‘정체성 중심의 선교적 삶’ 을 살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변화나 실천사항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금주 애찬 섬김

	금주 (4월 26일)		다음주 (5월 3일)
	Jorge, 김지현집사		이성우, 이현숙권사
	범사감사		생일감사
	Unity목장		아름다운목장